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벼는 아득한 그 옛날부터 삶의 버팀목으로 인류를 지켜주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작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벼로부터 나온 쌀은 고려시대에는 물가의 기준이었으며 봉급의 대상으로서 더욱 값진 존재이기도 했다. 전 세계의 식탁을 책임지는 곡물, 벼에 깃든 역사를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수천 년간 차곡차곡 쌓인 밥심, 벼





재배벼의 뿌리는 야생벼?

벼의 전신은 야생종이다. 야생종이 재배종으로 바뀐 시기는 8000여 년 전이다. 본래 야생 상태였던 것을 인간이 씨를 뿌려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야생벼와 재배벼로 나누어진 것이다.

벼과의 벼속에는 20여 종이 있지만 인류에 의해 재배된 벼는 아시아종(사티바)과 아프리카종(글라베리마), 두 가지 종뿐이다. 아프리카종은 유전적 변이가 단순해 널리 퍼지지 못했지만, 아시아종은 유전적 변이를 거쳐 다양한 재배종으로 진화하며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아시아종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양쯔강 이남에서 재배하는 인디카,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재배하는 자바니카, 한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재배하는 자포니카로 분류된다. 다만 자바니카는 인디카와 흡사한 관계로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가지로만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가 먹는 쌀은 자포니카로 모양이 통통하고 찰기가 있다. 쌀의 다른 갈래인 인디카는 퍼석하게 날리고 길쭉한 쌀이다. 안남미로 대변되는 동남아 쌀들이 그렇다. 인디카는 전 세계 쌀 무역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벼농사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그중 약 8000~9000년 전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인도로 전해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시된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인도 태생의 벼가 있다는 설이 있어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입구에는 소로리범씨 상징조형물이 놓여 있다. (출처=청주시청)



이 가운데 1998년과 2001년 한국의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의 한 구석기 유적지에서 오래된 범씨가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범씨는 세계 최초의 범씨로 판명 난 바 있다. 이는 서울대 AMS(방사선탄소연대측정) 연구실과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실의 절대연대값 측정을 통해 1만 3000~1만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소로리 범씨'라 부르는 고대형 범씨는 자포니카 계통으로 재배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구석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아직 없었다는 통념이 있고, 근거를 뒷받침할만한 범씨와 벼농사 관련 자료를 더 발굴해야 하는 단계인지라 소로리 범씨를 둘러싼 학계의 반응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벼농사에 적합한 대륙인 아시아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

카, 유럽 일부, 남북 아메리카 등 110여 개의 나라다. 특히 아시아의 벼 재배면적은 전 세계 벼 재배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가 벼농사에 적합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벼는 아열대성 작물로 햇빛, 비옥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작물이다. 특히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다행히도 아시아는 연중 많은 비가 내린다. 인도부터 동남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 걸친 대륙은 '몬순'이라는 계절풍 지역에 놓여 비가 많이 내린다.

몬순은 5월 말 인디아 대륙의 최남단부터 시작하여 9월이면 북인도의 히말라야 산지에서 끝나는데, 몬순의 영향으로 형성된 고온다습한 아시아의 여름 기후는 벼를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벼는 여기에 막대한 노동력이 추가되면 훌륭한 생산량을 보여준다. 1헥타르(ha) 면적에 벼를 심으



쌀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작물

어떻게 보면 너무 친근해서 의식해오지 못한 쌀이지만, 쌀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귀한 작물이었다. 특히 한국인의 일생은 쌀로 시작해서 쌀로 끝난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이다. 집에서 아기를 받던 과거에는 출산 시 위험변수가 많았다. 이에 우리 조상들은 생명이 태어나고 보존하는데 출산의 신, '삼신'을 불렀다. 출산 전에는 삼신에게 쌀, 미역, 정화수를 올려 순산을 기원했으며 출산 후에는 쌀로 밥을 짓고 미역으로 국을 끓여 올려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보살핌을 바랐다. 생을 마감할 때는 시신을 염습하기 전, 버드나무 젓가락으로 쌀을 세 번 떠먹여서 배고프지 않고 저승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쌀이 보급되기 전에 우리 조상은 피, 기장, 조, 보리 등 잡곡을 주식으로 했는데, 쌀은 한반도에 들어온 5~6세기경에야 귀족 식품이 됐다고 알려진다. 통일신라의 주식 유형은 북부는 조, 남부는 보리, 귀족층은 쌀이었다. 쌀은 고려 시대에 물가의 기준이었으며 봉급의 대상으로서 더욱 귀한 존재였다. 쌀이 곡류의 대표가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온 후부터다. 지금에야 쌀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쌀은 아무나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다. 아울러 과거에 쌀은 가장 가치 있는 화폐 역할을 했고, 쌀 한 가마니의 가치는 상당했다.

벼는 예나 지금이나 귀한 작물이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양식이자 세계 최대 곡물로 오래도록 전 세계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

면 평균 4.5톤(t)의 쌀을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문순 지역에 놓인 쌀은 다른 작물을 밀어내고 위풍당당하게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 단위면적당 많은 수확량은 곧 폭발적인 인구부양력으로 연결됐는데, 관련 학계는 중국과 동남아, 동북아 일대가 서유럽에 비해 오늘날에도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쌀의 영향이 크다고 해석해왔다. 벼는 이를 재배하는 지역의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남아 대부분 지역에서 벼농사 중심의 농경문화와 이에 따른 촌락 생활 및 상부상조 전통 등이 관찰된다고 보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재배 특성을 가진 벼농사는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을 불러일으켰으며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닌 '나눔'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